

#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인단 기준 논란 일단락

### 선거 60일 전인 3월 14일 기준 완화 ... 사실상 모든 단체에 선거권 보장 선관위원회에서 "전체 체육인들의 의사 반영 공감" ... 5월 13일 선거

오는 5월 13일 치러지는 광주시체육회장 선거인단 배정 기준 논란이 일단락됐다. 광주시체육회 회장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27일 제4차 선거관리위원회를 열고 선거인수 추가 배정기준을 확정했다. 구체적으로 선거권을 갖게되는 종목단체와 종목단체 대의원 자격 기준에 대해 선거일 전 60일(3월

14일)을 기준으로 하되, 이 기준일 전까지의 대한체육회 등록시스템에 등록된 종목단체의 가장 최근 자료를 활용키로 했다. 이는 3월14일까지 등록된 단체만 선거권이 주어지며, 3월14일 이후 등록된 단체는 체육계의 의견을 수렴한 결정이다. 애초 이날까지 등록된 종목단체로 선거권을 제한하지 않고 가장 최근 선수 등록 자료까지

로 열어놓은 것이다. 사실상 모든 단체에게 선거권을 보장한 결정이다. 이에 따라 선거일 60일 전인 3월 14일까지 선수 등록을 하지 못했던 경기인 육성팀 대표들은 대의원 자격을 획득해 회장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갖게 됐다. 선관위원들은 이날 대한체육회 유권해석과 법률자문 결과를 토대로 심의를 진행, 체육회장 선거에서 전체 체육인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데 공감해 선수등록 기준일을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된 '등록선수는 선거일 60

일 전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 자료로 한다' 문구는 선거일 60일까지 새로 등록된 선수에 국한하는 게 아니라, 선수등록이 완료된 시점을 의미한다고 해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체육회는 "체육인들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힘썼다"고 밝혔다. 선거 방법에 대해서는 투명·공정성을 위해 직접투표 방식으로 결정하고 선거인들의 투표 참여를 보장하기로 했다. 회장 선거는 5월 13일 광주시체육회관 2층 다목적체육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부 종목단체 대표들은 최근 "갑작스럽게

실시되는 보궐선거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는 선거인단 배정 기준으로 육성팀 대표들의 참정권이 박탈당했다"며 체육회와 회장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반발했다. '(가칭)광주시체육회 사랑하는 사람들'도 "선거일 60일 이전 등록규정을 적용할 경우 지난 3월 14일까지 5명 이상의 선수가 등록되지 않은 종목단체는 선거에 참여할 기회를 잃게 된다"고 가세했다. 광주시체육회장 선거관리 위원도 "광주시체육회장 보궐선거 선거인단 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며 사퇴하는 등 파문이 일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 조선대 육상 전국대회 종합 3위

### 멀리뛰기 김명하 금·이건우 은 400m 릴레이 은메달 등 획득

조선대학교 육상부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개최된 제75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에서 종합 3위에 올랐다.

멀리뛰기 국가대표인 김명하(3년·사진)는 경북 예천 종합운동장에서 열린 제75회 전국대학대학육상경기대회 남자 멀리뛰기 경기에서 7m 70cm 기록으로 금메달을 획득했다. 이건우(2년)는 7m 31cm의 기록으로 2위에 올랐다.

또 남자대학교 혼성 10종 경기에서 김기훈(1년)이 은메달을 획득했고, 400mR에서도 조선대학교 팀이 한국체육대학교에 이어 은메달을 획득했다.

김현우 부장교수는 "국가대표 김명하는 현재 멀리뛰기 기록이 급상승 중"이라며 "올해 전국체전은 물론 앞으로 치러질 국제경기에서도 전방이 보인다"고 말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안돼! 못 간단 말이야" 27일 열린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와 크리스탈 팰리스와의 경기에서 레스터시티의 제이미 바디(오른쪽)가 상대팀 골키퍼를 제치고 슛을 하고 있다. 레스터시티가 2-1로 역전승하며 3위 자리를 지켰다. /연합뉴스

## 세계육상연맹, '의족 스프린터' 리퍼 올림픽 등 출전 불허

### "의족, 경기력 향상 기대 이상 도움"

세계육상연맹이 '의족 스프린터' 블레이크 리퍼(32·미국·사진)의 '올림픽을 포함한 공식 경기 출전'을 불허했다.

세계육상연맹은 27일(한국시간) "외부 인사로 구성된 기술분석팀이 리퍼가 제출한 의족을 세밀하게 살폈다. 패널들은 '리퍼가 제출한 의족이 경기력 향상에 기대 이상의 도움을 준다'고 분석했다"라며 "연맹은 분석 결과에 따라 '리퍼는 현재 상황에서 올림픽과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리퍼가 사용하는 의족은 경기력 향상에 도움을 준다. 의족을 사용하지 않는 다른 선수의 상황을 고려하면 공정한 경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 사용하는 의족으로는 올림픽과 세계육상연맹이 주관하는 대회에 출전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당시 리퍼가 사용하던 의족은 그의 키를 189.2cm로 키웠다.

도쿄올림픽 출전의 꿈을 포기하지 않은 리퍼는 기존 의족보다 4cm 정도 짧은 새 의족을 제작해 세계육상연맹에 제출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그러나 세계육상연맹은 이번에도 리퍼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계육상연맹은 "현재 연맹 규정과 여러 분석 결과를 보면 리퍼의 추정 키는 174.4cm다. 의족을 사용해 그 이상으로 키를 높여 비장애인 경기에 출전하면 공식 기록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리퍼는 태어날 때부터 양쪽 다리가 짧았다. 그의 부모는 의족을 마련해 리퍼가 어린 시절부터 스포츠를 즐기게 했다. 리퍼는 장애인 육상에서 두각을 보였고, 2012 런던 패럴림픽 남자 400m 은메달, 200m 동메달을 땀다. 그는 오스카 피스토리우스(남아프리카공화국)가 의족을 달고 2012년 런던올림픽에 출전하는 모습을 본 뒤 자신도 패럴림픽이 아닌 하계올림픽에서 뛰는 걸 열망했다. 의족을 달고 뛴 피스토리우스는 2008년부터 세계육상연맹과 법적 다툼을 했고, 출전 자격을 인정받아 2012년 런던올림픽 남자 400m와 1600m에 출전했다. 그러나 이후 의족 육상 선수들의 올림픽 출전은 번번이 좌절됐다. /연합뉴스

## '빅4' 밀려나나...남자테니스 세대교체 바람

### 올 단식 레이스 순위 1위 치치파스 등 '20대 기수' 강세

올해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에는 '세대교체' 바람이 거세게 일고 있다.

최근 남자 테니스는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와 라파엘 나달(2위·스페인), 로저 페더러(8위·스위스), 앤디 머리(12위·영국)의 '빅4'가 20년 가까이 지배해왔다.

이들 가운데 1981년생 페더러가 올해 40세가 됐고, 나달이 35세, 조코비치와 머리는 34세 동갑이다. 이 '빅4'는 2004년부터 올해 호주오픈까지 총 68회의 메이저 대회 가운데 남자 단식에서 60회 우승을 나눠 가졌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연속 메이저 대회 우승은 이들이 돌아가며 했다.

그러나 지난해 US오픈에서 도미니크 팀(4위·오스트리아)이 우승을 차지하며 '빅4'의 아성에 균열을 냈고, 올해 3월에는 다닐 메드베데프(3위·러시아)가 세계 랭킹 2위에 올랐다.

'빅4' 이외의 선수가 세계 랭킹 2위에 오른 것은 2005년 7월 이후 올해 3월 메드베데프가 15년 8개월 만이었다.

메드베데프는 지난주까지 세계 2위를 유지하다가 나달이 25일 끝난 ATP 투어 바르셀로나오픈 우

승을 차지하며 다시 나달에게 2위 자리를 내줬다.

그러나 나달이 랭킹 포인트 9810점, 메드베데프는 9700점으로 차이가 크지 않다.

또 올해 성적만 따로 집계하는 2021년 단식 레이스 순위에서는 스테파노스 치치파스(5위·그리스)가 2840점으로 선두다.

시즌 도중이라도 '빅4'가 아닌 선수가 단식 레이스 1위에 오른 것은 2014년 스타 바브링카(21위·스위스) 이후 올해 치치파스가 7년 만이다.

올해 성적만 집계한 단식 레이스에서는 치치파스에 이어 안드레이 루블료프(7위·러시아)가 2위, 조코비치가 3위다.

치치파스는 올해 호주오픈 4강에 들었고, 롤렉스 몬테카를로 마스터스 우승과 멕시코오픈, 바르셀로나오픈에서 준우승했다.

치치파스가 최근 흐름을 이어 연말까지 2021시즌 성적 1위를 지킬 경우 2003년 앤디 로딕(미국) 이후 18년 만에 '빅4' 이외의 연말 세계 1위가 된다.

지난해 US오픈에서 우승한 팀이 28세이고, 메드베데프가 25세, 치치파스는 23세로 모두 20대 선수들이다.



스테파노스 치치파스

물론 여전히 조코비치가 세계 1위 자리를 지키고 있고, 올해 남은 메이저 대회들인 프랑스오픈과 윌버턴, US오픈 등에서 또 조코비치나 나달, 페더러 등이 정상에 오를 경우 2021년도 여전히 '빅4'의 강세가 유지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페더러가 40대에 접어들고, 역시 30대 중반을 넘어가고 있는 조코비치나 나달이 팀과 메드베데프, 치치파스 등 '20대 기수'들의 도전을 언제까지 이겨낼 수 있을지 흥미로운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중장로관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353

###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2관 내일의 기억,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 3관 내일의 기억, 자신어보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극장판 바다 탐험대 육도넷·불의 고리 대륙발
- 4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5관 더 스파이
- 6관 비와 당신의 이야기
- 9관 미나리, 서복, 고질라 VS. 콩
- 7관 씨네카를 극장판 귀멸의 칼날: 무한열차편 명탐정 코난: 비색의 탄환, 노비디
- 8관 씨네카를 서복, 어른들은 몰라요

GAC기획공연 11시 음악산책

GAC 11시 음악산책  
**박해상의 사랑스런 것들을 위한 노래**  
 일시 : 2021.04.29(목) 11:00  
 장소 : 광주문화예술회관 소극장  
 문의 : 062-613-8234

**국악 상설 공연**  
 일시 : 2021. 04. 01.(목) - 04. 30.(금)  
 매주 화-토 17:00  
 장소 : 광주 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